

제5절 일생의례와 세시풍속*

1. 일생의례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의례를 거치는데 이것을 일생의례라 한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가 하는 기자(祈子)로부터 시작하여, 출생·성년·혼인·회갑·장례·제사까지가 일생의례에 포함된다. 이 일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치는 일이지만,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사람들은 이때를 특별히 기념하기 위하여 의례를 치른다.

일생의례와 유사한 개념으로 서구식 용어인 통과의례(rites of passage)라는 말이 있다. 통과의례는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마디가 되는 곳에서 행하는 의례를 말한다. 여기에는 태어나기 전의 기자의례나 죽은 후의 제례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널리 쓰이는 말로 유교식의 관혼상제·사례라는 용어가 있다. 관혼상제에는 기자, 백일, 돌 같은 출산의례와 회갑례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통과의례 또는 관혼상제라는 용어보다 한국인이 한평생 거치는 의례를 지칭하는 말로 '일생의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속이 농경사회의 공동체 문화를 기층으로 하여 형성되었던 만큼 일생의례도 공동체 문화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일생의례는 개인이 혼자서 행하는 의례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치르는 의례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어 고통을 덜고 견뎌내며,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써 개인의 기쁨을 공동체의 기쁨으로 확대시킨다. 돌, 결혼, 회갑 등은 개인 또는 집안의 의례만이 아니었던 까닭에 마을사람들 상호간의 행위적·물질적 도움 속에서 치러졌으며, 자연 마을잔치의 차원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일생의례에도 품앗이와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향촌사회가 급격히 힘을 잃게 되면서 그 문화적 힘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 젊은이들이 떠나버리고 노인들만 남아 있는 농촌은 공동체 문화의 활력도 저하되어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사회변동으로 인해 의례를 치르며 맛보던 떠들썩한 활력과 신명도 감소해버렸고, 의례의 실행방식이나 임하는 사람들의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오늘날의 결혼 풍속도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사람살이에 활력을 주던 전통문화를 어떻게 되살려야 할 것인가가 우리시대의 과제이다.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나타나는 문화의 변동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체험하게 했으며, 이러한 문화적 병리현상은 집단의 삶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촌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우리는 사람살이에 조화와 활력을 주고, 사람 사는 맛이 나게 하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어떻게 이어받아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 것에 대해

* 제5절은 최덕원(崔德源) 집필임.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조화를 지향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화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문화의 변동이 뒤따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우리답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게 만드는 풍속까지 버릴 수는 없다. 오히려 전통문화에 담겨 있는 사람과 사람을 맺어주는 의례화된 방식을 우리사회에 되살려낸다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개인주의화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과거의 의례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그보다 일생의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져오는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살아 있는 풍속으로 되살리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삶과 문화를 건강하고 의미 있게 꾸려가는 것은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몸을 다스리는 방법이 다르듯이, 문화집단도 그들의 체질에 맞는 문화가 있게 마련이다. 우리시대의 대안이 되는 문화는 외래의 것이 될 수 없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조화와 활력을 주는 문화를 가꾸는 데에 전통문화는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향마을에서 옛날부터 전승되어오던 일생의례를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뜻에서 의미 있는 출발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순천지역에 전승되어오는 일생의례를 정리하였다. 전통적으로 전승되는 의례에는 그 집단의 문화적 전통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일생의례는 순천을 이해하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